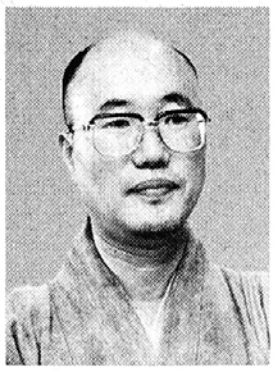
"여의도를 포교 1번지로…"

여의도 불교문화원장 원택스님



"여의도를 정치·금융·방송·연예 1번지라고 하면서도 그동안 이 지역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늦었지만 여의도지역에 생명존중과 화합의 정신을 펼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일 조계종총무원 직할포교당으로 문을 연 여의도불교문화원 초대 원장 원택스님(총무원 총무부장)은 여의도 포교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불사라고 강조했다.

직장직능단체 의견수렴 사랑방처럼 이용했으면…

종단직할 포교당인 만큼 새로운 운영방법을 실험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원택스님은 "여의도불교문화원을 이용하는 직장·직능단체의 대표자 9~15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프로그램과 재정 등 모든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여의도지역 불교단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또 자문위원회도 위촉해 직장인들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해 운영에 반영한다는 방침도 세웠다고 밝혔다.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랑방으로 생각하고 이용해주길 당부합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불자들과 단체들이 문화원의 주인입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제8회 행원문화상 발표

역경 **이창섭씨** 문학 **성낙주씨**
예술 **김회경씨** 대중예술 **김용림씨**

◇이창섭씨

◇성낙주씨

◇김회경씨

◇김용림씨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이 주최하는 제8회 행원문화상 역경상에 이창섭씨(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문학상에 성낙주씨(노원중학교 교사), 예술상에 김회경씨(국악실내악단 오느름 대표), 대중예술상에 김용림씨(탤런트)가 각각 선정됐다.

이창섭씨는 동국역경원 역경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법화경〉〈천태오소부〉〈오등회원〉 등 경전과 선서(禪書)를 번역하는 등 역경과 교학발전에 힘써왔으며, 성낙주씨는 장편 불교소설 '차크라바르틴' '왕은 없다' 등을 통해 한국 불교소설의 수준을 한단계 높였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회경씨는 96년 '불밭에 피는 꽃'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창작 국악교성곡 '혜초'를 작곡하는 등 불음 포교에 앞장섰고, 김용림씨는 불교방송에서 9년간 '신행365일' 프로를 진행하며 신행 포교에 이바지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심사위원장 홍윤식 교수(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는 "이번 심사에서 가장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부문은 예술상"이라며 "후보로 올라온 가수 김태곤씨도 범패와 현대음악을 접목시키려는 의욕과 폭넓은 활동을 인정받았으나 창작실적이 적어 아쉬움을 남겼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행원문화상 시상식은 29일 오후2시 중앙승가대 정진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교차로

'관무량수경 강설' 출판기념회

혜경 한국불교법화종유지재단 이사장 스님은 1일 대학로 흥사단 건물 3층 강당에서 〈관무량수경 강설〉(집문당 간) 〈법화경이야기〉(범우사 간)의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美 교회현황 살피고 귀국

성초 진각종 통리원장은 지현 진각복지재단 사무국장과 함께 8월28일부터 9월3일까지 6박7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순방길에 올라 워싱턴에 신설할 심인당 헌공불사 준비작업을 점검하고 LA 불광심인당을 찾아 교화현황을 살폈다.

강북장애인복지관 관장에

양산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은 조계종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1일 서울 강북장애인복지관 관장으로 임명됐다.

조계종 기초선원장에

영진 금산사 스님은 8월31일 조계종 기초선원 운영위원회에서 기초선원장에 선출됐다.

도선사 주지 진산식

광복 도선사 주지는 6일 도선사 호국참회원에서 주지 진산식을 거행했다.

우란분절 개강법회

혜인 삼화불교대학 학장스님은 8월25일 삼화불교대학 법당에서 우란분절 및 2학기 개강법회를 봉행했다.

성훈따주기 강의

무구 서울 수효사 주지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2시 수효사문화원에서 성훈따주기 강의를 실시한다. (02)313-3060

'99 자원봉사자 대회

지도 불교사회복지회 대표이사 스님은 14일 오후2시 대구 한국통신 봉덕전화국 4층 강당에서 99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한다. (053)476-6631

밀교문화硏에 1천만원 기탁

대자심 진각종 대전수는 최근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에 연구기금 1천만원을 쾌척했다.

장경호거사 24주기 추모법회

박윤흔 한국불교대원회 이사장은 5일 대원회 대법당에서 대원회 설립자인 故 대원 장경호 거사 24주기 추모법회를 거행했다.

일초스님 '능엄경' 회향법회

성낙승 불교방송 사장은 15일 오후2시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금화사 주지 일초스님의 〈능엄경〉 회향법회를 봉행한다. (02)705-5305

KDI 초빙석좌교수에

박세일 前 청와대불자회장(前 청와대사회복지수석)은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경영대학원 초빙석좌교수로 임명돼 가을학기부터 연구와 강의를 맡는다.

회갑기념 저서 출판기념회

김희오 동국대 교수(국제관계학)는 10일 오후 6시30분 경주 콩코드호텔 1층 에메랄드 홀에서 화갑기념 저서인 〈21세기 국제관계와 한반도〉〈현대지역정치론〉 출판기념회를 거행한다. (0561)745-7000

정년퇴임 논문 봉정식

이재순 건국대 교수는 17일 오후6시 건국대학교 동문회관 3층에서 정년퇴임기념 논문집 봉정식을 갖는다. (02)450-3566

강남에 '영봉학원' 개원

문명진 한마음선원신도회 부회장은 지난 2월 교사직을 퇴직하고 최근 강남구 논현동 101-5 영봉빌딩에 '영봉학원'을 개원했다. (02)548-0131

보림회 창립법회

성상현 대한불교보림회 회장은 8월21일 서울 아현포교원에서 창립기념법회를 가졌다. 보림회는 장의·웨딩·돌·회갑연사업등 불교식 통과의례를 연구·개발해 저가로 서비스를 대행한다.

옥수복지관 명심보감 강의

김병조 불자연예인은 10일 오후2시 서울 옥수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명심보감에서 배워보는 삶의 지혜'를 주제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개강좌에 나선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장에

이상규 천태종 금강합창단 지휘자(한양대 국악과 교수)는 최근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단장 및 지휘자로 임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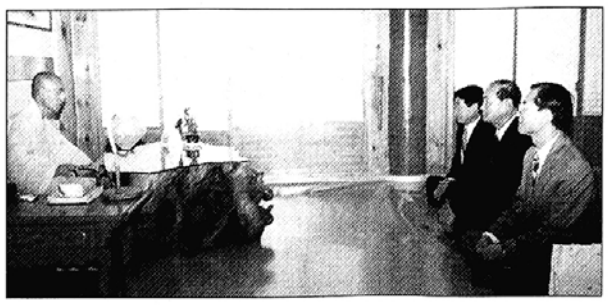
대부도 둥지청소년집 위문

김인택 서울불교청년회 회장은 5일 대부도 자현사 둥지청소년의 집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친다.

인 사

조계종 중앙신도회 △사무총장 최연(대불련총동문회 사무총장·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 부집행위원장, 사진 왼쪽) △기획실장 겸 총무부장 임동현(전 포교사단 사무국장·사진 오른쪽)

진각종 ◇회당학원 △심인중 교장 정희영 △심인고 교장 박노선
◇진각중 총금강회 서울지부 △수석부회장 진산·일정지 △총무 성정·대성지 △감사 현암·시명
◇진각복지재단 △과장 정은숙


◇8월27일 해인사로 혜암종정스님을 예방한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백창기씨(오른쪽서 두번째).

백창기 중신회장 종정 예방

조계종 중앙신도회 신임 백창기 회장은 8월 27일과 30일 각각 종정 혜암스님과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당선 인사차 예방했다.

8월27일 혜인사 원당암에서 백 회장의 신임인사를 받은 혜암스님은 "중앙신도회장은 참으로 중요한 자리다. 책임감을 가지고 삼보를 호지하고 불교를 지켜주기 바란다. 대장부의 굳건한 마음으로 멀리 보고 정의롭고도 정성스럽게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8월30일 총무원을 예방한 백 회장은 "신도회를 하루빨리 정상화시켜 신행을 활성화시키고 종단의 안정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산스님은 "신도회가 화합을 이뤄 불교계의 난제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한편 중앙신도회는 16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회장 및 임원단 취임식을 거행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도전하는 정신이 아름답다"

과천복지관 제주서 장애인 스쿠버 교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하고 과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자승)이 주관하는 장애인 스쿠버다이빙 체험행사가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제주도 서귀포 운섬에서 개최됐다.

장애인들에게 도전정신을 심어주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하반신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각 15명씩 30명이 참가했으며, 2일 과천중앙공원 야외무대에서 발대식〈사진〉을 갖고 제주도 서귀포시 운섬으로 장소를 이동해 실시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스님다이버모임인 '천수천안 동우회' 스님 5명이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안순진 노인대학장 별세

안순진 정각노인대학장이 2일 오후 12시 5분 노환으로 입적했다. 향년 85세.

안순진 보살은 1932년 경성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현 경기여상)를 졸업, 해방전 불교신우회 발기위원, 해방후 건국준비위원 위촉, 87년 통일민주당 김영삼대통령후보 불교담당 특별보좌역, 전국여성불교연합회 초대회장, 불교도총연합회 고문 등을 역임했으며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과 총무원장 여성봉사상을 수상했다.

5일 오전 11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의예식장 11호실에서 발인. (02)363-5299

충격 티베트 달라이라마 제도는 끝나는가?

차기 달라이라마는 인도인, 유럽인, 혹은 여성일 수도 있다. 중국의 압력속에 15세 선출은 불가능할 수도…

불교저널 제2호/신국판/240쪽/가격 7,000원

영화와 불교 〈마음의 고향〉에서 〈화엄경〉까지 목호찬

영어로 배우는 부처님 말씀 〈법구경〉

발굴 불교소설 〈가야진 용왕당기우록〉 태허당

특집 불교와 환경
환경을 통한 연기의 개선운동 도법
사찰 환경보존 안전핀이 없다 김태형
불교와 환경(라이나노이)/바른 농사, 바른 세상(김맹수)
생태환경에 대한 불교적 각성

대행스님 독일법회
한국 비구니스님의 독일 첫 법회

종교간의 대화-가톨릭 수원교구 대천동 성당 방상복 신부
"천주님께 108배 하는 신부" 박연진

스승예찬
벽안의 수행자를 독려하기 위해 화를 내시는 스님
구산스님께 진 빚 로버트 버스웰

르포 중국에 남긴 한국고승의 족적을 찾아서-조영록
삼국·고려스님의 구법성지 천태산을 가다

제1회 만해축전
만해문학의 사상적 의미-시대의 현실과 맞서기 위한 출가

특집 새롭게 불붙는 여성불교
가족과 개인의 행복을 비는 기복불교라는 비판속에서도 실천불교를 향한 여성불교계의 움직임은 힘차기만 하다.
한국여성불교운동의 발자취/스리랑카의 여성불교 外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자들 윤청광

백호주의 극복한 호주불교 다렌 넬슨

위기에 처한 불교유산
위험 문화유산이 된 유적, 앙코르 돔

칼라화보
동트는 운주사/통도사 옥련암 아미타 삼존도/대행큰스님 독일대법회/아잔타 석굴 벽화/달라이 라마의 보좌/앙코르 돔의 불두와 노스님/용수로 뒤덮인 관음상/평온한 불교도들
현대불교시 감상
신인소설 아름다운 계절(백자오)
미술 운주사의 부처님들(신명순)
연극 장호의 시극 〈수리뫼〉(김홍우)
영화 임권택의 불교영화 〈아제아제 바라아제〉(문학산)
만화 맨질스님(정수일)/달마와 무제
옛날 이야기속으로 사면과 보은
사찰탐방기 칠불사(최장수)

투고를 기다립니다.

독자와 함께 만드는 열린 편집을 위하여 건전한 비평정신을 바탕으로 한 각종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불교시사논평, 한국불교의 현안을 비롯해서 21세기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글
2.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등 국민의 관심사를 불교의 시각에서 다룬 글
3. 불교를 소재로한 시, 소설, 동화, 동시, 희곡, 시나리오, 수필, 만화 등
4. 불교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의 평론
5. 올바른 신행을 계도하는 글
6. 스승예찬, 사자상승(師資相承)의 미담
7. 신행수기, 사찰 탐방기 등 재가불자들이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와 발언
8. 기타 편집에 대한 제안과 제보

※ 글의 분량과 마감하는 날은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 필명이나 익명도 좋습니다. 그러나 본명과 주소 전화 등 연락할 곳을 명기해 주십시오.
※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본사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보내실 곳 : 월간 불교저널사
(우)100-380 서울 중구 묵정동 23-1 신현빌딩
전화 02)2285-2421/2 FAX 02)2285-2420

구독신청 전화 (02)2285-2421~2 팩스 (02)2285-2420